

# 류현진, 애리조나 설욕전...체이스필드 악몽 떨쳐낼 것인가

한달전 같은 장소 3⅓이닝 5피안타 5볼넷 3실점 '부진'

오늘 선발 등판...애리조나, NL유일 20승 고지 선점 1위

지난 4월 빅리그 데뷔 후 가장 뜨거운 한 달을 보낸 류현진(31·LA 다저스)의 5월 첫 상대는 올 시즌 첫 등판에서 아픔을 안겼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다.

류현진은 3일 오전 10시40분(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 필드에서 열리는 2018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애리조나는 류현진이 올해 정규 시즌 첫 등판에서 만난 상대다. 당시 장소도 체이스 필드였다.

정확히 한 달 전인 4월3일 애리조나전에서 류현진은 3⅓이닝 5피안타 2탈삼진 5볼넷 3실점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5선발로 시작한 류현진의 입지도 불안해졌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후 4경기에서 패투를 선보였다. 4경기에서 24⅓이닝을 소화하며 패배없이 3승, 평균자책점 1.46의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피안타율이 0.119에 불과했고, 삼진을 무려 32개나 속어내며 탈삼진 본능을 과시했다.

시즌 개막 후 한 달 동안 3승 무패 평균자책점 2.22를 기록한 류현진의 위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5명의 다저스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고 평균자책점도 가장 낮은 류현진을 이제 2선 발급으로 바라본다.

지난달 28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서 4연승, 시즌 4승에 도전한 류현진은 5⅓이닝 동안 7개의 삼진을 속어내며 4피안타(2홈런) 2실점으로 호투했다. 역전 적시 2루타까지 때려낸 류현진은 승리를 눈앞에 뒀으나 볼펜이 무너지면서 승리를 날렸다.

류현진이 애리조나 상대 설욕전과 시즌 4승 재도전에 성공하려면 체이스 필드에서의 악몽을 떨쳐야 한다.

류현진은 체이스 필드에서 유독 약했다. 체이스 필드에서 통산 6경기에 선발 등판해 33⅓이닝을 던졌는데 2승 2패에 그쳤고, 평균자책점이 5.08에 달한다. 홈런도 5개나 허용했다. 악몽은 시즌 첫 등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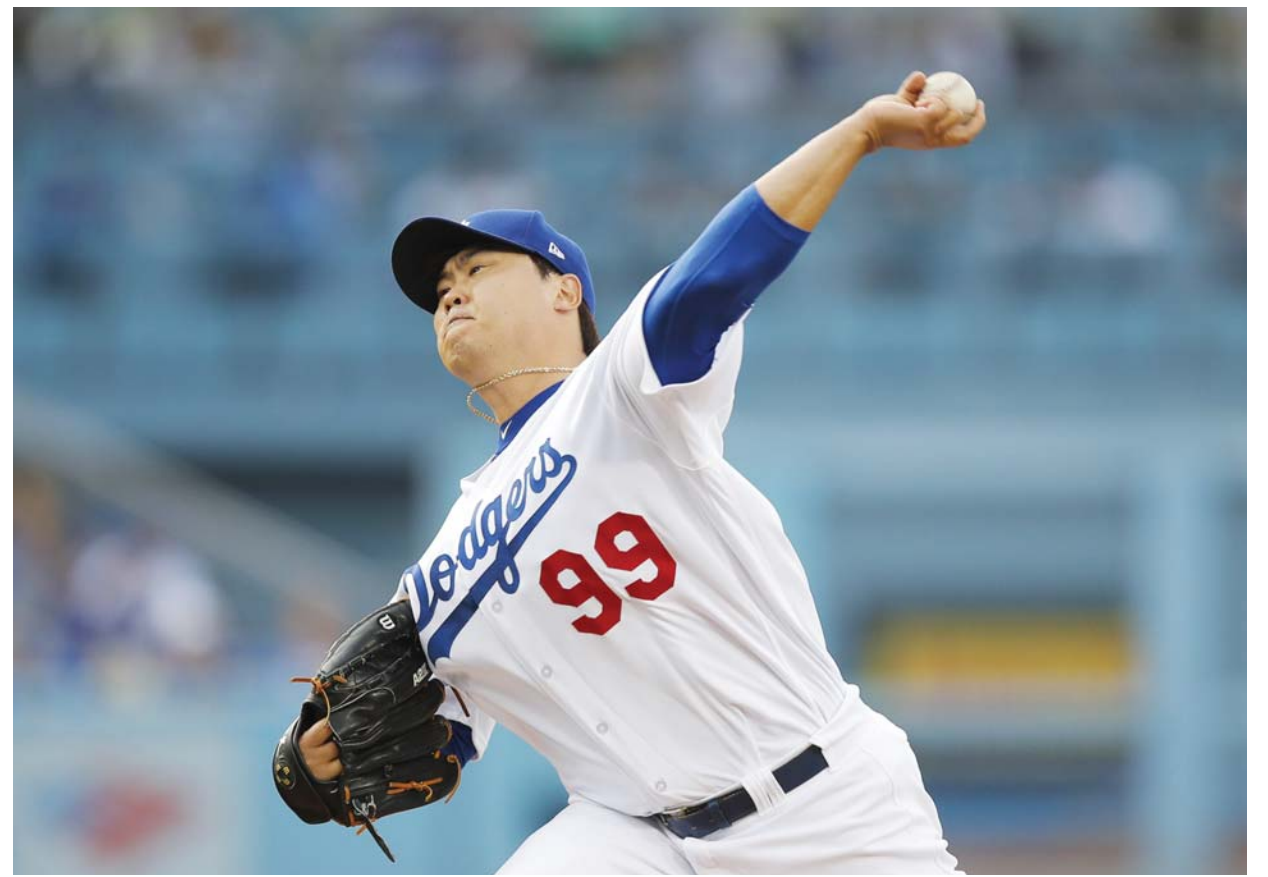
서도 되풀이됐다. 애리조나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애리조나는 내셔널리그 15개 팀 가운데 유일하게 20승 고지를 밟았다. 1일까지 20승 8패를 거두 내셔널리그 승률 1위를 잡은 중이다.

팀 타율은 0.235로 높지 않지만 팀 타점 128개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3위를 달릴 정도로 응집력을 자랑한다. 장타력도 무시무시하다. 팀 홈런에서 34개로 1위, 팀 장타율은 0.422로 내셔널리그 2위다.

류현진이 넘어서야 할 것은 체이스 필드의 악몽뿐 아니다. 천적도 불리해야 한다. A J 풀룩과 풀쿨드슈미트가 경계대상이다.

풀룩은 류현진을 상대로 통산 타율 0.346(26타수 9안타) 4타점을 기록했다.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지는 못했으나 안타 9개 가운데 2루타가 2개, 3루타가 1개였다.

올 시즌 컨디션도 좋다. 풀룩은 타율 0.291(103타수 30안타) 9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팀 내에서 가



장 많은 홈런을 쏘아올렸다. 안타 3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장타다. 2루타 8개, 3루타 2개를 쳤다. 풀룩은 최근 7경기에서는 타율 0.345(29타수 10안타) 4홈런 8타

점으로 상승세도 자랑했다. 풀룩슈미트는 류현진과 통산 맞대결에서 타율 0.455(22타수 10안타) 2홈런 7타점으로 강한 면모를 자랑했다. 2루타도 3개나 쳤다.

풀쿨드슈미트도 올 시즌 타율 0.273(99타수 27안타) 4홈런 11타점으로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 7경기에서는 타율 0.259로 주춤하고 있다.

## 박태환, 수영 꿈나무 위해 일일 스승으로 변신

광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서 유망주 8명 멘토링



한국 수영의 대를보인 박태환(왼 사진)이 꿈나무들을 위해 일일 스승으로 변신했다. 박태환은 1일 광주남부대시립국

제수영장에서 광주·전남지역 수영 유망주 초·중학생 8명을 대상으로 멘토링 행사를 진행했다. 수영 선수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이야기 해주고 선수 전원에게 영법 지도를 했다.

이번 행사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뤄졌다. 박태환은 이 대회 홍보대사로 뛰고 있다. 박태환 뿐 아니라 안세현(SK텔레콤) 등도 대회 알리기에 힘을 보탤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은 내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2019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200여개 국 1만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경영·다이빙·아티스틱수영·수구·하이드라이빙·오픈워터수영 등 6개 종목이 남부대, 영주체육관, 조선대학교, 여수엑스포 해양공원 등에서 각각 열린다.

## 정현, 나달 꺾을 수 있는 선수 8명에 들었다

美 스포츠매체 ESPN, 파란 주인공 가능성 평가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22위)이 '클레이코트의 황제' 라파엘 나달(32·스페인·1위)을 넘어설 수 있는 선수로 꼽혔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은 2일(한국시간) '클레이코트에서 나달을 꺾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이라는 기사에서 나달의 클레이코트 연속 행진을 가로막을 만한 선수 8명을 선정했다.

가장 마지막 순서로 거명되기는 했지만, 정현도 파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달은 최근 클레이코트 대회에서 19연승, 46세트 연속 승리를 기록하며 '휴신'의 면모를 한껏 과시 중이다.

(ATP) 투어 사상 단일 대회 최다 우승 기록도 작성했다.

나달은 ATP 투어 대회에서 77회 우승했는데 이 중 56개 타이틀이 클레이코트 대회에서 거머쥔 것이다. 클레이코트에서 통산 401승 35패를 기록했다.

클레이코트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ESPN은 나달의 독주를 막아낼 만한 선수 8명 중 마지막으로 정현을 꼽으면서 "정현은 알렉산드르 즈베레프와 21세 이하 선수 중 최고의 자리를 다투는 선수"라며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나달과 같은 수비력을 자랑한다"고 평가했다.

"정현은 공격력이 다소 부족하고 서브가 취약하다. '킬링 샷'도 없다"면서도 "기질이 대단한 선수"라고 전했다.

정현은 나달과 두 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모두 졌다. 두 차례 맞대결은 모두 지난해 벌어졌다. 클레이코트 대회인 바르셀로나 오픈 8강에서 0-2(6-7(1-7)



2-6)로 졌고, 하드코트 대회인 파리 마스터스에서도 0-2(5-7 3-6)로 패배했다.

정현은 클레이코트 대회에서는 통산 15승 12패를 기록 중이다.

이 매체는 나달을 꺾을 만한 선수 8명 중 알렉산드르 즈베레프(21·독일·3위)를 첫 순에 꼽았다. 마린 칠리치(30·크로아티아·4위)와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7·불가리아·5위), 후안 마르틴 델 포트로(30·아르헨티나·6위), 도미니크 팀(25·오스트리아·7위), 존 이스너(33·미국·9위), 파비오 포그니니(31·이탈리아·19위)도 후보로 거론했다.

뉴스

## '골프여제' 박인비, 2주연속 세계랭킹 1위

평산산 2위 렉시툰스 3위...리디아 고 13위

'골프 여제' 박인비(30·KB금융그룹)가 2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다.

1일 여자골프 세계랭킹에 따르면 박인비는 평점 랭킹 포인트 7.49로 1위를 유지했다.

2년 6개월 만에 랭킹 1위에 복귀한 박인비는 지난 주말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공동 31위에 머물렀지만 정상상을 내주지 않았다.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공동 3위를 한 평산산(중국)은 랭킹 포인트

7.23으로 2위, 렉시툰스(미국·6.72)가 3위다. 박인비와 평산산의 격차는 0.26점에 불과하지만 두 선수 모두 이번 주 텍사스 클래식에서 불참해 랭킹 1위 다툼은 5월 중순 이후에나 볼 수 있다.

유소연(28·메디힐)이 4위, 박성현(25·KB5나온뱅크)이 5위를 지켰다. 에리아 푸터누간(태국)과 김인경(30·한화큐셀)도 6, 7위로 변동이 없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 'KLPGA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최혜진(19·롯데)은 10위에서 9위로 올라섰다.

제시카 코다(미국)가 12위에서 두 계단 상승하며 10위가 됐다. 지난 주말 '메디힐 챔피언십'에서 1년 9개월 만에 우승한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18위에서 13위로 5계단 순위를 끌어 올렸다.

KLPGA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이 자 통산 10승을 거둔 장하영(26·BC카드)도 31위에서 5계단 올라 26위에 위치했다.

뉴스

## "더 좋은 축구인 황선홍이 되겠습니다"

FC서울 감독 자퇴 인사... "결과물 선물 못해 진심으로 미안"

성적 부진으로 FC서울 수장직을 반납한 황선홍(50) 감독이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황 감독은 1일 서울 페이스북을 통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순간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더 좋은 팀과 더 좋은 결과물을 선물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미안함이 크다"고 전했다.

서울은 4월30일 황 감독의 자진 사퇴를 알렸다. 황 감독은 29일 구단을 찾아 사의를 표했다. 상주 상

무와의 흥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긴 지 하루 만이다.

황 감독은 "승리의 기쁨과 어려운 시간을 함께 해준 FC서울 선수 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FC서울 감독으로 기회를 주신 구단주님과 사장님, 단장님 이하 구단 관계자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2016년 6월 중국으로 떠난 최용수 전 감독을 대신해 서울의 감독이 됐다. 계약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황 감독은 전북 현대의 승점 삭감을 등에 업고 그해 K리그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지난 시즌 5위로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했고 올 시즌에도 10경기에서 승점 10(2승4무4패)에 그쳤다. 데얀, 오스마르 등 기존 선수들을 떠나보내며 팬들의 반발에 직면했고, 최근에는 박주영과의 불화설까지 터졌다.

본의 아닌 휴식기를 갖게 된 황 감독은 "미래에 어떤 위치에 있던 그동안의 경험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 더 좋은 축구인 황선홍이 되겠다"고 다짐을 기약했다.

서울은 이윤용 감독대행 체제로 시즌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뉴스

## 오승환, 1이닝 2K 무실점 쾌투

평균자책점 2.19...토론토, 연장 끝에 미네소타 제압 3연승

'볼부처'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삼자범퇴로 1이닝을 마치며 자신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오승환은 2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타깃 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와 경기에서 6회말 선발 마르코 에스트라다의 뒤를 이어 등판, 삼진 2개를

결들며 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지난달 29일 텍사스 레인저스전에서 1이닝 1실점을 기록해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이 깨진 오승환은 1경기 만에 다시 무실점 투구를 선보였다.

올 시즌 14번의 등판에서 오승환이 주자를 내보내지 않은 것은 4월 27일 보스턴 레드삭스전에 이어 두



명의 타자를 상대로 18개의 공을 던졌다. 작구 최고 구속은 93.3mph(약 150km)를 찍었다.

토론토는 연장 끝에 미네소타를 7-4로 제압했다.

번째다.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38에서 2.19로 내려갔다. 세